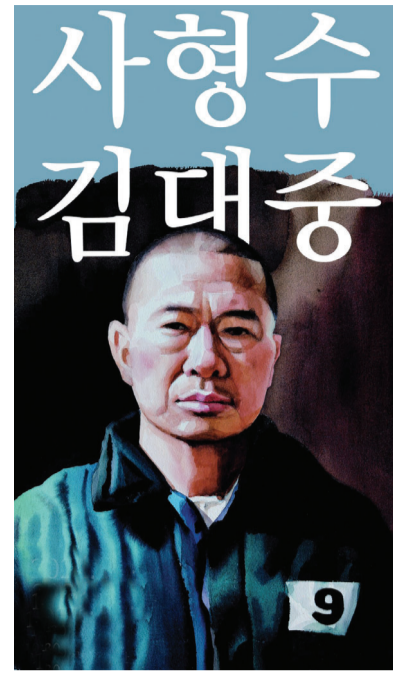


# 격동의 현대사와 파란의 생애 담은 연극



## 사형수 김대중

“뮤지컬 이승만, ‘박정희 콘서트’도 있는데 왜 우리는 뛰어난 지도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과 맞물려 오성완 배우의 말이 울림을 준다. 푸른연극마을과 김대중추모사업회가 오는 29~31일(오후 7시 30분)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펼치는 연극 ‘사형수 김대중’에서 그는 김대중 역을 맡았다.

이번 작품은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했던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대통령의 옥중 수난사를 무대화했다. 현실을 기반으로 동시대 사건을 다뤘다는 점에서 한 편의 드라마극이자 다큐멘터리 연극에 가깝다.

본 공연에 앞서 21일 오전 씨어터연바람서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주역 배우 및 제작진들이 총출동해 작품의 모나드(핵심) 격인 3장, 5장을 무대에 올렸다.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정진백(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 회장은 “오래전부터 무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형수 김대중’은 김 전 대통령의 시난고난한 인생사 중에서도 임계점에 가깝던 ‘옥살이’를 조점화했다”며 “흥행을 떠나 죽음의 위기, 치욕을 딛고 절체절명의 시간을 이겨낸 ‘인간 김대중’의 순일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안전과 함께 시작된 3장은 신군부 관계자의 무거운 독백으로 채워졌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와 관련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날조된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위반 등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투옥된다.

서신교환과 면회도 막힌 채 수감 50일이 넘자 수사관(이봉하 분)은 “손을 잡자”며 화유한다. 자신

푸른연극마을·김대중추모사업회

DJ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29~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21일 씨어터연바람서 제작발표회

들과 결탁하면 이후에 있을 재판은 그저 요식행위 일뿐. 향후 “대통령 자리만 빼고 다 드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대중은 “협력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날 죽인들 어찌하겠소”라며 제안을 고사한다.

‘노인과 바다’, ‘더 파더’ 등 심리-모노 드라마를 통해 숙련된 배우의 내면 연기는 흡입력 있다. 선 굵은 표정 연기와 인동초의 삶을 녹인 페르소나에는 현대사의 질곡이 드리워졌다. 민주화의 표상

과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기해야 하는 터라 부담도 뒤따랐다는 후문.

한편 김 전 대통령이 신문으로 5·18 소식을 접하는 장면은 사공간을 초월해 형성화된다.

극은 시민군이 쫓기했던 과거 순간으로 플래시백하는 것은 물론, 도청 앞 최후의 항쟁까지 여러 장면을 몽타주한다.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소극장 세트의 한계를 극복해 기억을 투사하는 씬들은 공간적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81년 1월 무기형으로 감형된 후 청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의 모습들도 생생하게 그려진다.

DJ의 옥중 투쟁은 광주항쟁의 전면화와 항쟁 촉발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항쟁 당시 시민군의 구호가 ‘계엄 철폐’, ‘김대중 석방’이었을 정도로 그의 구속은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

김 전 대통령의 옥중기를 다룬 이번 극은 DJ의

정신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공연에 위해 총 17명 배우들은 9월 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약 한 달여 서울에서 연습을 진행했다. 지난 14일부터는 지역 예술촌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할 만큼 모두 열성적으로 임했다.

특히 5·18을 다룬 공연임에도 캐스팅 보트에 지역 출신의 배우는 단 세 명뿐이다. 전국 공모를 거쳐 경기도, 부산 등 각지에서 뜻 있는 배우를 캐스팅한 점은 5월 정신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계된다.

이희호 여사 역을 맡은 김규리 배우는 “학창 시절 공부했던 한국 근현대사는 그저 시험을 보기 위한 수

단이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서론이 넓고 사회를 보는 눈이 선명해지면서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모두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항쟁을 애도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크나 한 명의 배우로서 할 줄 아는 것은 그저 연극일뿐”이라며 “예술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디션 공고를 보자마자 ‘흥분’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형수 김대중’은 경기도 안양시 등에서 초청받아 향후 수도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3만원.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수감 중 받은 신문에서 ‘광주 5·18민중항쟁’의 참상을 접하고 절망하는 김대중 역 오성완 배우(왼쪽),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진 시민군 앞에서 기도하는 이희호 여사 역 김규리 배우.



## 소설 ‘소년이 온다’, 음악 ‘오월의 약속’으로 노래하다

박용수 광주시청 인권평화국장 AI 뮤직 랩으로 영상·작사·작곡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한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가 AI 작곡프로 그램을 매개로 뮤직비디오화 돼 화제다.

광주시청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지난 18일 뮤직비디오 ‘오월의 약속’을 유튜브 채널 박용수의 선물BOX에 공개했다.

이 곡은 광주 5월 민중항쟁을 다룬 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박 국장이 AI 작곡 프로그램인 Music lab으로 영상·작사·작곡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열렸을 당시 광주의 비전을 ‘광주의 빛’이라는 작품으로 곡화한 적 있다”며 “그때 익혔던 AI 기술을 접목해,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며 창작 의도를 밝혔다.

이어 “5·18 당시 최후의 순간까지 도청에



박용수 씨가 AI 프로그램을 통해 작사·작곡·영상화한 뮤직비디오 ‘오월의 약속’. <박용수 제공>

서 절전하다 산화해 버린 문재학, 전영진, 윤상원 열사 등의 의지를 기리고, 이들을 기다

리는 부모의 마음을 곡에 투영했다”고 덧붙였다.

작품에는 오월 영령들을 위무하거나 부모들의 마음이 담긴 가사들이 곡에 녹아있다. “어머니 역사가 나를 불러요/ 문을 박차고 나간 너 뜬 눈으로 지냈어/ 한 순간도 잊은 적 없어 잊지 않아요 그 약속 내일은 승리 하리란” 등 노랫말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이외에도 곡에는 5월 어머니들의 치유 그림, 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 축전과 표지, ‘한중 재가 된다’면 어느 이름 모를 강에 조용히 뿌려 달라’던 류동훈 열사의 일기 등이 삽입됐다. 이들 대부분이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들이다.

박 국장은 “당시 ‘소년’들의 결사 항쟁이 오늘 날 위대한 5월 정신이 됐고, 민주주의의 씨앗으로 남았다”며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5·18을 콘텐트화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림자’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기획전 12월 13일까지

일반적으로 예술 평론은 텍스트를 통해 작품을 설명한다. 미술, 음악, 공연 등 작품이 먼저 존재하고, 글을 통해 이에 대한 비평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김조라 작가는 “통상적인 비평 구조의 역방향도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한 편의 전시회를 기획했다. 미술과 음악을 매개로 텍스트(시)에 드러난 여성을 포착하는 이번 전시는 비평의 방법론을 확장하는 듯하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제7회 허스토리 기획전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림자’(사진)를 오는 12월 13일까지 연다. 여성에게 씌워지는 프레임에 예술적 시각으로 조망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재단 내 광주여성전시관에서 펼쳐진다.

전시는 김 작가의 시를 강부연(회화), 윤송일(클래식)이 예술적 서사를 통해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부연은 사라지는 길과 풍경을 주제 삼은 시 ‘그림자’를 재해석한 수채화 ‘길 위의 풍경’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윤 씨는 설치작품 ‘세 개의 레이어’와 곡 ‘who will save us’로 인격, 육체, 영혼으로 투영된 레이어를 유기적으로 표현한다. 사운드, 영상 등 복합



적인 기법을 활용해 다각도적 의미를 형성화한다. 전시는 영상으로 기록해 재단 유튜브 및 온라인전시관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전시를 기획한 김조라 작가는 “문학 평론의 미술화, 음악화를 시도하는 이번 전시는 각각의 작품 그 자체로도, 새로운 형태의 평론으로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평론의 시각화, 음악화 작업은 예술비평의 외연 및 형식을 넓히고 여성의 이면을 포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했다.

무료 전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결실의 계절에 만나는 ‘만월의 춤’

정순아 개인전, 내년 1월 5일까지 전남대병원 1층 갤러리

가을을 표현하는 수사는 많다. 독서의 계절, 낭만의 계절, 여행의 계절 등등.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가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지고 풍성한 느낌이 든다. 땅, 하늘, 햇빛, 바람,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에게 값없는 은전을 베푼다. 자연이 기린 곡식과 열매는 많은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모티브 삼아 전시를 여는 정순아 작가. “행복했던 기억들이 어우러진 고향땅에서 자연을 벗 삼아 나만의 세계를 펼치고자 한다”는 말에서 자연에 대한 애착이 느껴진다.

정 작가가 ‘만월(滿月)의 춤’을 모티브로 내년 1월 5일까지 전남대병원 1층 갤러리에서 작품(22점)을 선보인다.

등근 달은 넉넉함과, 위안, 평안으로 연계되며 보는 이에게 충일함과 만족감을 준다.

‘만월의 춤’은 오색의 가을빛으로 화사하다. 따뜻한면서도 신비로운 색감은 가을의 서정과 낭만을 품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다양한 색상은 프리즘을 통과한 가을빛을 세세하게 분절한 이미지다. 각각의 색은 태양, 바람, 물, 달, 별을 상징하며 모든 색은 결국 인간에게로 수렴되는 것 같다.

정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나에게 땅은 어머니와 같으며 그것을 하얀 종이 위에 찍어내고 그리고 행위들은 나를 버릴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며 “이 조각들이 관람객들이 가진 다양 각색의 생각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설렌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작가는 조선시대 미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5회 개인전, 11회 국제아트페어, 다수 단체전에 참가했다. 현재 한국목판화협회, 광주 판화가협회 회원, 광주여성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만월의 춤 I’

##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행사 성료...한·중·일 특별공연

광주시는 지난 2014년에 중국의 취안저우시, 일본의 요코하마시와 함께 동아시아문화도시 원년도시로 선정됐다. 세 도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 이래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가 성료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 회장, 류재한은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 제주특별자치도 예술단 및 관계자를 초청, 지난 16일~19일 문화도시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중국 취안저우-일본 요코하마-제주특별자치도 3개 도시의 문화를 토대로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자리였다. 프로그램은 서장한옥마을을 한복체험, 제15회

광주비엔날레·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전시 관람 등이 이어졌다. 특히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특별공연은 제9회 서장한옥마을 무대에서 17일~18일 양일 간 펼쳐졌다.

중국 취안저우 사범대학 음악무용예술단은 북건성 지역 민남 전통 음악(南音)을 배경으로 한 무용과 악기 연주를, 일본 요코하마에서 온 에리어51 밴드는 일본 추억의 가요곡 등을 선보였다. 제주 서귀포문화원 민속보존예술단은 토속 민요와 전통 무용을 선사했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2014년 시작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가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의 10년도 서로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 문화의 이해를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